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2546.30	코스닥	729.69
	(+23.97)		(+3.61)
금리	2.305	환율	1439.80
	(-0.036)		(+4.80)

조주완 LG전자 CEO
“관세 영향 2분기부터
美 증설은 마지막 수단”
02



소비·수출 등 성장 모멘텀 실종 새 정부 첫해부터 마이너스 공포

⑤ 韓경제 제로성장 위기

IMF·피치 등 韓경제전망 줄하향
최상목 “불확실성·하방위험 분명”
정부지출 확대 등 재정확장 시사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경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커지지 못 한 채 증가 폭이 0%대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각종 지표의 회복이 더딜 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외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오는 6월 들어설 새 정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집권 첫해에 ‘마이너스(-)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남은 5년의 행로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4면〉

부진을 거듭하던 민간소비는 느닷없는 계엄 탓에 지난해 말 이후 더 위축됐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올해 초부터 예고돼 움에 따라 기업 수출 전선에 줄곧 초비상이 걸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지난 22일 크게 내렸고 5월 한 달의 중요도는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히 보인다. 대선에 이어 비서진·각료 인선

등을 마치면 3분기가 코앞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회의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조2000원 규모의 정부발 추경안을 지난 22일 제출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수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국회는 물론 시장에서 환영받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전재정에 유독 방점을 뒀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임기는 비록 한 달여 남았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 확장 가능

성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직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 발표 전후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측치 하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일 0.9%에서 0.7%로 하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0.5%로 더 내렸다. 불과 2~3주 만에 0.4%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씨티은행도 종전에 제시한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당사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0.1%)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집행 등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보다 강력한 확장적 정책 조합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더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견조한 분기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중순 종전의 1.3%에서 1.0%로 0.3%p 내렸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 등의 IB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1% 선에 겨우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6·3 대선 선봉에 “위기 넘는 준비된 대통령”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확정 “김경수·김동연과 원팀으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운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m-커버스토리

“좋아할 것만 보여준다”… 편향·중독 불러

AI 추천 알고리즘의 함정

고영향 AI, 규제 법적장치 미비
저연령·고령 문해력 부재 심화
극우·극좌 등 사회갈등 부추겨

‘개인화’ ‘이용자 친화’로 포장된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이 전 연령층에서 온라인 중독을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 SNS, 쇼핑 서비스 등에서 활용되는 AI 알고리즘은 편향된 검색 결과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필터버블(Filter Bubble, 특정 성향 강화)’을 일으킨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접하는 구조 속에서 이용자는 점점 중독에 취약해진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AI·IT 업계들 중심으



‘필터버블(Filter Bubble)’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 AI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공돼 다른 관점에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AI 생성 이미지

로 AI 추천 알고리즘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기술이 심리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IT 업계 관계자 A씨는 “AI 추천은 구매 상품이나 시청 콘텐츠를 반복 노출시켜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지우지 않으면 견고한 버블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극좌 유튜브를 통한 갈등 심화와 돈 음모론 확산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 AI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글과 유튜브 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틈에서 저연령층과 고령층의 AI 리터러시(문해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AI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은 청소년 범죄에서도 드러난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홍준표 “최종후보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 토론·원샷 경선할 것”
▲한동훈 “경선 토론에 10% 힘만 써…李에겐 200% 쏟아 박살 내겠다”
/사진 뉴시스

▲최상목, 무디스 만나 “韓 국가시스템 질서 있게 운영 중”… IMF 역할 강조
▲안철수 “한 대행 출마하면 경선으로 최종 후보 뽑아야…입당이 좋은 길”

▲이준석 “이공계 젊은 리더십 절실”… 유권자에 손편지 10만부 발송
▲전쟁기념사업회, KWO 나지포럼 마쳐…러·우 종전협상 교훈 모색